

CREATION

TRUTH



미래 창조과학 사역자 양성을 위한 ITCM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섯 명이 10주간의 창조사역 집중훈련(ITCM, 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에 임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가 창조과학을 체계적으로 전하며, 차세대 사역자까지 배출되기를 기대하며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창조과학선교회는 지난 몇 년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때 배출된 인턴십 이수자들은 현재 창조과학 사역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아래 명단은 이수 순).

최태현 : 현 University of Hawaii 도시 행정학 교수, 창조과학선교회 세계관 강사

조희천 : 생명과학 전공, 지질학으로 전과하여 대학원과정 입학 준비 중

이인우 : 현 Cedarville College 지질학 학부과정 중

노휘성 : 지구과학 교육학 석사, 현 창조과학학교 및 교회 세미나 인도

이제까지의 인턴십은 참가자의 개인 스케줄에 맞춰 진행되었으나, 여러 사람이 함께 참가할 수 있



Field Trip 중인 ITCM 참가자들 - Zion Canyon에서

는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ITCM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여름과 겨울방학에 맞춰 10주간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에 참석한 다섯 명이 첫 참가자들입니다. ITCM 참가자들은 과학적 증거, 성경의 기록, 그리고 진화론이 사회에 들어왔을 때의 악영향

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공부를 합니다. 진행방법으로는 성경공부, 창조과학 독서, 창조과학 학교와 탐사여행 참석, 자체 세미나, Field Trip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ITCM은 왜 필요할까요?

“수십억년 역사의 진화론이 틀렸고, 성경이 정말로 역사적 사실이야”라고 세상이 먼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고전 1:21a) 세상이 진화론을 스스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고전 1:21b)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사실임을 알고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작이며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엡 3:10)

학교가 수십억년 역사를 말하는 진화론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이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 교회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성경이 사실임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과, 이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난 10여 년 간 창조과학선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196차에 이른 창조과학 탐사여행, 19기 창조과학학교, 빼곡히 차있는 교회 세미나와 신학교 강의, 매달 발송되는 Creation Truth, 창조과학 도서 집필 등 매년 사역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드러난 결과들은 창조과학 사역이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들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과학 사역자가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ITCM은 이런 창조과학선교회 사역의 효과와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모든 사역의 결정체며, 창조과학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역들이 다음 세대의 사람을 키우는 ITCM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ITCM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ITCM 참가자 모두가 열심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신앙과 지식이 성숙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확신을 뛰어넘어, 자신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시대에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이번 참가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변화된 지식과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ITCM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ITCM에 참여하여 견고한 믿음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다음 세대에게 창조과학 탐사여행, 창조과학학교, 각 교회 세미나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입니다. 또한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다음 세대가 성경과 교회로 돌아오고 한국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ITCM을 진행하며 창조과학선교회에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미주에 있는 영어권 2세들을 향한 부담입니다. 영어 세미나와 탐사여행도 시작되었고 점점 그 회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M을 위한 ITCM도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ITCM이 영어권을 위한 시금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5)

이재만 /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노아의 방주가
이랬다면
지금 살아남아
이렇게 어리석은
방주를
만들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 홍수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AFTER EDEN

by Dan Lietha





시조새의 상상도: 파충류도 새도 아닌 이런 어중간한 동물은 생존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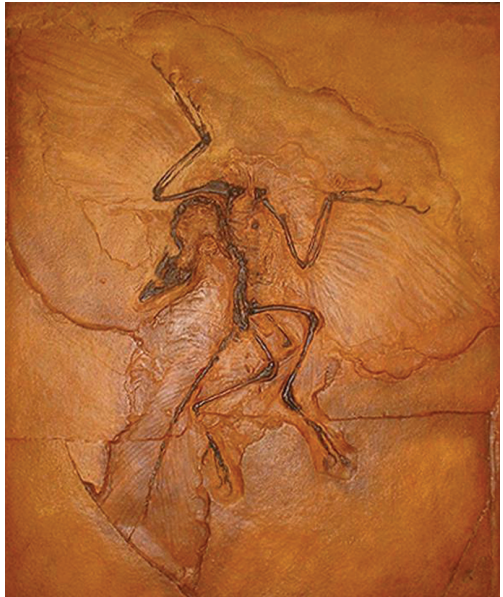
"생물의 진화과정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는 진화론자들이 항상 고민해왔던 질문이다. 예를 들어 "조개와 같은 무척추동물이 어떻게 딱딱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헤엄치는 물고기로 진화했을까?" "알을 낳던 파충류가 어떻게 바로 새끼를 낳는 포유류가 되었을까" 진화하는 과정을 한번도 본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체 기능을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더라도 애매한 중간 과정을 그리기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진화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날아다니는 '새' 일 것이다. 기던 동물이 어떻게 날게 되었을까? 정말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 고민 가운데 진화론자들은 파충류를 새의 조상으로 선택했다. '알'이라는 공통분모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있는 파충류들은 모두 네발로 기어 다닌다. 네발로 기다가 날려면 두 발로 걷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겠지만, 살아있는 동물 가운데는 두발 가진 파충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자연스럽게 화석으로 눈을 돌렸다. 그런데 화석에서 두발 가진 파충류가 있었는데,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두발 가진 공룡이었다. 만화나 어린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아기공룡 둘리나 미국 어린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Barney가 이를 캐릭터한 것이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이런 두발 가진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는 이론을 전개해나가기 시작했다.

일단 공룡에서 새로 진화되었다는 믿음(!)이 생기자 진화론자들은 화석에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도 진화는 증거가 아니라 그릇된 믿음이 먼저였다는 사실이다. 그 진화의 믿음을 갖고 발견한 것이 유명한 '시조새(archaeopteryx)'다. 시조새는 1861년 첫 보고된 이래로 지금까지 여섯 구 정도가 발견되었지만, 대부분 완전치 않다. 그 가운데 1877년 독일에서 발견된 두 번째 것이 가장 크고 잘 보존되어있어서 교과서에도 들어있다(아래 사진).

과연 이 시조새 크기를 얼마나 상상하는가? 공룡이 떠오르며 적어도 수 미터는 될 것 같지만 고작 30cm밖에 되지 않는다! 그 크기가 비둘기나 까마귀 정도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파충류의 특징인 긴 꼬리, 날개 끝에 갈퀴, 치아가 없는 모습, 그리고 새의 특징인 깃털, 날개, 부리를 말하며 중간형태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파충류의 특징이라고 하는 앞의 세 가지는 새들도 갖고 있는 반면, 새의 특징인 나머지 세 가지는 오직 새만이 갖고 있다.

실제로 권위 있는 논문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시조새 화석을 완전한 새로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새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인 패두시아는 사이언스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Science, "Archaeopteryx: Early Bird Catches a Can of Worms", 1993).



시조새 화석

“고생물학자들은 시조새가 날개 가진 공룡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것은 새다. 잔 가지에 앉을 수 있는 새다. 어떤 말로도 이를 바꿀 수 없다.”

1982년 시조새에 대한 국제회의에서도 완전한 새로 결론 났다. 더욱이 나중에 시조새와 같거나 더 아래 지층에서 오늘날의 새와 동일한 화석들이 발견되어 혼동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조새 화석이 교과서에 들어있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새들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독자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완벽한 깃털은 어떤 동물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진화론자도 파충류의 피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깃털로 진화했는지 이론조차도 못 만든다. 피부나 깃털이나 모두가 완전하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 속에 시조새가 진화의 증거로 남아있다면 깨끗이 지우기 바란다. 이는 한 마리 작은 새 화석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씨앗

무와 배추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채소다. 긴긴 겨울이 지나 얼지 않도록 땅 속 깊이 묻어 두었던 무를 땅에 심으면 곧 화려하게 꽃이 피고 수많은 벌과 나비들을 유혹하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꽃이 지고 씨가 맺히면 그것을 말린 다음 작은 방망이로 두들기면 똑 같은 모양의 예쁜 갈색의 무 씨를 빼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배추씨는 무 씨처럼 직접 준비하지 않고 매년 읍내에 가서 사 오셨다.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어 사용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로봇이 자기와 같은 로봇을 만들지 못한다. 로봇 속에는 그런 과정을 수행할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로봇을 만든 사람들의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복사기가 복사기를 제작하는 설계도와 설명서는 무한정 복사를 해 낼 수 있지만 복사기를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씨는 참 신기한 것이다. 이 작은 한알의 씨 속에 잎이 생기고,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생겨 다시 또 씨를 맺어 다음 세대에는 더욱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들어 있다. 이 정보에는 새로운 생명체 자체가 주위 온도나 햇빛이 비치는 시간 등 환경에 반응하며 자라고 생존할 수 있는 정보와 다음 세대를 위해 꽃을 피우고 씨를 준비하고 마침내는 흙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까지 가지고 있다. 꽃 속에 꿀을 만들어 벌과 나비를 끌어 암술 머리에 수술을 날라 오게 하는 정보까지 가지고 있다. 크기

는 작지만 사람이 만든 로봇이나 복사기와는 차원이 다른 정보와 설계가 담겨 있음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지적인 존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정보의 법칙이다. 심지어 원치 않아도 배달되어 보자마자 쓰레기 통에 들어가는 각종 상업 광고들도 지적인 존재인 사람이 만든 정보들이다. 또 어린이는 지식이 적기 때문에 수준 높은 정보를 만들지 못하듯이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이나 복사기의 정보 수준은 생명체의 정보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유치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체의 근원이고 생명의 주인인 창조자 하나님의 수준은 방법과 생각에서 사람들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이사야 55:9)는 것에 동의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놀라운 생명체의 씨앗은 어디서 왔을까? 창조자를 무시하는 진화론적인 생각으로는 무 씨가 먼저인지 무 씨를 맺는 무가 먼저인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 씨를 맺는 무가 먼저라고 분명하게 말씀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세기 1:11-12).

그런데 질 좋은 채소와 과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씨앗이나 묘목을 사 와야 한다. 집에서 준비한 씨는 다음 해에 처음처럼 좋은 품질의 채소나 과일이 되지 않는다. 알이 굵은 감자 씨(씨눈)를 심어도 알이 작은 감자가 열리고, 속이 짙 차는 배추 씨를 심어도 온도가 적정온도 이하로 2 주 동안만 내려가면 춘화현상으로 배추 속이 차지 않고 꽃 동이 올라와 김장할 수 없는 배추가 되고 만다. 가끔은 종묘상에서 사온 씨를 심었어도 배추 속이 차지 않아 김장철에 속상해 하시던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도 있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지구가 아니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저주 받은 지구이기 때문이다. 좋은 씨앗을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여전히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일들이 풍성하다. 동물들과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여러 가지의 풀과 채소와 과일들이 계절을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 주고 있다.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김치나 샐러드 바의 무 씨 새싹이나 생선 조림의 맛있는 무 조각에서도 볼 수 있다. 또, 작은 씨앗들 속에 엄청난 정보를 넣어 두신 창조자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약속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는 듯 하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 LA 사랑의교회

지난 7월 10일부터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에서 제 19기 창조과학학교가 시작 되었습니다. 본 교회는 2009년부터 매 년 여름 창조과학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또 LA 사랑의교회(담임목사 김기섭)에서는 5 주간의 미니 창조과학학교를 8월 7일에 마쳤습니다. 창조과학학교 참석자들은 오는 8월 13일 샌디에고의 창조과학 박물관과 지층과 화석 답사를 위한 1일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창조과학 세미나

최우성 박사는 지난 7월 11일 엘시노에서 비전시각장애인센터(대표 추영수 목사)의 수양회 강사로 참석하여 노아홍수에 대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중간에 장애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며, 가족들도 함께 참석하여 노아홍수 이전의 좋았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통과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창조과학 탐사여행

7, 8월에도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이어졌습니다.

7월 11-13일에는 여성 모임인 커피브레이크의 탐사여행이 있었습니다. 커피브레이크 컨퍼런스를 마친 분들을 주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커피브레이크는 창조과학선교회가 남가주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세미나 등을 통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었는데 탐사여행은 처음입니다. 탐사여행 동안 2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실함을 공감했습니다.

7월 18-21일에는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직접 모집하는 탐사여행을 가졌습니다. 매년 7월 셋째 주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신청하여 탐사여행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엘파소 열린문교회(담임목사 한태수)와 한국의 해운대 제일교회(담임목사 심옥섭) 분들께서 다수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모집 탐사여행도 일찍 인원이 마감되어 문의 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7월 25-27일은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의 빙하시대 탐사여행이 있었습니다. ANC 온누리교회는 매년 5월 말 Memorial Day에 출발했었는데 이번에 7월 말에 요세미티를 중심으로 출발하는 빙하시대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평년보다 세 배나 되는 많은 눈이 내려 폭포들이 장관이었습니다. 빙하시대의 이해를 통해 노아홍수 이후, 바벨탑, 욕기 등 다른 금금증에 대하여도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8월 1-3일은 기쁨의 교회(담임목사 이희문)는 지난 3월 4일 창조과학세미나를 통하여 창조과학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창조과학탐사여행을 계획하여 이번에 다녀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정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한국말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공룡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들, 그리고 그랜드캐년을 보며 진화론이 거짓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성도간의 교제가 쉽지 않았는데 창조과학탐사여행과 더불어 성도들간에 좋은 교제의 시간기도 했습니다. 창조과학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ITCM Field Trip

8월 3-5일에는 ITCM(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창조사역 집중훈련)에 참가자들은 Zion Canyon, Bryce Canyon, Grand Staircase-Escalante National Monument 등을 돌며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Field trip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보며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현재 여름방학 기간 10주간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ITCM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ITCM은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걸쳐 각각 10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탐사여행

새생명비전교회(담임목사 강준민)는 7월 16일과 30일 양일에 샌디에고 탐사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었는데 한국어는 일반 성인들 중심으로, 영어는 교사와 유소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창조와 지구역사 박물관 관람을 통하여 사실적인 복음을 실감나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쁨의교회 탐사여행 중 Visitor Center에서

노회성 강사 창조과학학교 창조주 하나님 세미나

현재 ITCM 2 단계 과정에 있는 노회성 과학교사는 지난 7월 31일 처음으로 LA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정엽)에서 진행하는 새신자 프로그램에서 ‘창조주 하나님’ 강연을 하였습니다. 또, 19기 창조과학학교에서도 강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창조과학 사역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역자들이 준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한국방문

이재만 부회장은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일본은 Love Creation과 함께 순회 세미나를 가지며, 한국에서는 한동대학교, 전주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와 교회들을 순회합니다.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문제는

컨텐츠가 아닌 ...



교회 교육과 세상 교육의 차이

창조론자와 진화론자의 토론 대결이 있을 때, 진화론자들이 컨텐츠(contents)와 설득력에서 밀릴 때마다 흔히 내세우는 것 중의 하나가 “진화론자들의 논문은 과학 학술지에 계속 게재되고 있지만 창조론에 관한 논문은 전무하다. 그러니 창조과학은 종교단체나 아마추어들 사이에서나 이슈가 되는 것이고 전문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사이비 이론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다. 제 3자가 그 말을 듣게 되면 “진화론은 전문 과학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검증된 이론이지만 창조론은 그 내용의 오류들 때문에 검증과정에서 거부(reject)된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다면 왜 창조론 논문은 기존의 일반적인 과학 저널에 실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증과학(operational science)과 유사과학(pseudo science)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 실증과학은 자연계에서 관찰 가능하고 실험실등에서 재현 가능한 과학을 말한다. 하지만, 진화론은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즉, 진화론은 자연계에서 관찰 가능하지도 않고 실험실에서 검증가능 하지도 못하다. 그래서 진화론은 실증과학이 아닌 유사과학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창조과학도 동일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화론이 일반대중에게는 실증과학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진화론에 근거하여 해석된 논문들이 과학저널에 계속해서 실리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현재 과학의 패러다임(사고의 틀)이 오직 진화론/자연주의(naturalism)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똑 같은 수준의 실증과학의 연구를 했다 치더라도 그것을 창조론적이나 지적설계론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현 과학저널의 리뷰과정을 통과할 수 없다는게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느 창조과학자가 유전자에 관한 높은 수준의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기전을 발견했다고 치자. 그 연구에 근거하여 논문을 작성했는데 마지막 해석/결론 부분에 “그러한 신묘마축한 구조와 기능이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초월자의 창조나 지적설계로 여겨진다”라는 해석이 첨부되

었다면 과연 그 논문의 리뷰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여기서 잠깐 현 시대의 과학의 헌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진화론자들의 저서에서도 천명되었듯이 과학의 제1헌법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1법칙)은 “오로지 물질적(materialistic)/자연적(naturalistic) 원인에 의해 이 우주가 어떠한 법칙으로 생성되어 움직이는 지를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이 반드시 자연주의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학논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과학자들의 게임의 룰에 의하면 “초자연적인 초월자나 지적설계” 같은 내용은 언급조차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은 종교나 철학에서 다룰 내용이지 과학에서는 절대 수용불가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거의 모든 과학교육 지침서 첫 페이지에 과학의 정의가 “과학은 우주와 생명에 관한 자연주의적(naturalistic) 연구와 해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수년 전 캔사스 주의 교육위원회에서 이 과학의 정의를 좀 더 포괄적으로 “과학은 우주와 생명에 관한 논리적(logical) 연구와 해석”이라고 수정하였다가 진화론 과학자들의 반발과 위협으로 다시 원래대로 복구 된 적이 있다. 진화론자들에게 왜 그 “자연주의적”이라는 단어가 그토록 중요했을까? 그 이유는 만일 “논리적 해석”이라는 정의를 수용하게 되면, 지적설계등의 해석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주의적(=진화론 적) 해석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현상도 결과도 반드시 자연주의적으로만 해석되어야지 그 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중세 카톨릭 교회 교수하던 그 무서운 편협성의 오류를 지금은 진화론 패러다임의 과학계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다시 창조과학자의 그 수준 높은 유전자 연구논문 얘기로 돌아가 보자. 그 논문의 심사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그 논문의 실증 가능한 부분은 훌륭한 연구이고 출판 가능하다. 하지만 그 해석 부분은 수용불가이다. 왜 저자는 과학논문에서 종교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가? 종교적 내용은 과학저널에 절대 수용불가이다. 그 해석 부분을 빼든지, 자연주의적 해석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논문게재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정이 되지 않으면 그 논문은 출판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다. 그 해석 부분을 빼 버리면 그 논문은 게재가 가능하나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창조론 논문도 아니요 진화론 논문도 아닌 일반 논문으로 여겨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 과학저널에 창조론 논문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창조론 과학자가 창조나 지적설계의 배경 신념으로 연구하고 해석했지만 결국은 일반논문으로 처리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창조론자가 실력이 모자라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창조론 연구논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 과학계의 “rule of the game” 때문이다.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토론대결에서 논리적으로 열세에 몰릴 때마다 그러한 유치한 무기와 주장을 되풀이 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교회의 소명은 무엇일까? 교회와 학부모들은 위의 캔사스 주에서와 같은 “과학의 포괄적 정의”가 현 교육계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지역 교회가 먼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 과정 없이는 어떤 시민운동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의 터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시편 11:3).



김무현 박사
해양도목공학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후:

인간의 길, 끊어진 길

지난 Creation Truth의 글들을 통해 하나님을 잊으려 했던 시도의 결과는 허무주의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가운데서 허무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다. 어떤 이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의미를 굳이 깊이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들은 아마도 허무하다는 것으로는 도저히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의미”를 찾는 사람들일 것이다. 비록 그들도 자신들의 삶이 근본적으로는 “무”로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하겠지만 최소한 이 땅에서 사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삶은 의미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의미를 찾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의 한계는 무엇인지 간략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하나님 없이 의미를 찾는 하나의 시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사라질지언정, 나의 자손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주고 간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언뜻 숭고한 이 넘쳐넘 들리는 이 말은 불행히도 전혀 허무를 극복하지 못한다. 첫째,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야말로 자신의 이론을 지지하는 생각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재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다소 노골적으로 들리는 자연주의적 사고에 이르게 된다. 둘째, 나도 유한한 존재이고, 나의 자손들도 유한한 존재이다. 그런

유한한 존재들이 아무리 서로를 연결한다 해도 무한한 존재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한한 존재들이 서 있는 이 세상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34:4).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강력한 사고 하나가 결합되면 위의 생각은 아주 매력적인 현세적 철학이 된다. 그것은 바로 진화철학이다. 말하자면 이렇다. “나는 사라질지언정, 나의 자손들은 점점 더 진보된 사회, 진보된 신체, 진보된 문화, 진보된 역사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잠시 머물지만, 내 삶은 거대한 진보의 아주 작은 한 걸음이다.” 이러한 사고는 아마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보다는 19세기와 20세기를 살았던 세대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사고였을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 믿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산업혁명부터 냉전시기까지 눈부신 과학적 진보, 정치적 자유의 확장, 그리고 늘어나는 경제적 풍요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다. 지금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우리 삶이지만, 우리 역시 기나긴 진보의 결과물이고, 지금 우리의 존재가 후세의 진보에 힘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이제 단지 “생존”이 아니라 유토피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불행히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진보에 대한 낙관으로부터 너무 많이 깨어버렸다. 세계대전과 냉전, 경제불황, 환경오염, 유전자 조작, 거대한 감시권력 등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과연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1:31). 완전했다는 말씀이다. 그 이후는 죄악이 더욱 관영해지는 역사일 따름이었다 (창세기 6:5).

마지막 한 가지 언급할만한 사고는 이것이다.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곧 신이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누군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힌두교, 불교, 그리고 최근 뉴에이지의 가르침과 맥이 닿아 있다. 20세기 후반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사고가 퍼지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관건은 우리가 정말 신이 될 수 있느냐이겠지만,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창세기 1:26). 우리는 신이 아니다. 신을 “닮은” 피조물일 뿐이다 (창세기 5:1). 신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신을 잃어버린 후 우리 자신에게서 희망을 찾으려 했겠지만, 닮았다는 것과 정말 신인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허무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말한다.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12).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다. 오직 그 분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4:6).



최태현 박사
행정학



CGN TV 탐사여행

6/13 - 6/16/2011

그랜드캐년 탐사를 먼저 했었더라면 기계공학이 아닌 지질학을 선택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계속 공부해가면서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과 주변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로 인도하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민/CGN TV 촬영감독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진화론이 가슴 깊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과 함께 이번 여행을 하게 된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 많은 축복에 감사드리고 자라는 아이들이 더 많이 탐사여행에 참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아이들부터) 올바르게 진리를 믿고 많은 유혹 속에서 분별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윤유선/배우, 서울드림교회

부족한 저를 가르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손짓,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아래 진행된 일임을 알게 되었기에 제 믿음에 재정비를 할 수 있었고 제가 느낀 감동과 사랑을 간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해야겠다는 사명감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신지수/배우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정말 힘들게 믿었는데 (안 믿어지고 의심이 너무 많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신이 강하게 든다는 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끝없이 들린 성경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여기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한지혜/배우

믿음생활과 세상 사이에서 참 많이도 타협하며 살아왔구나, 이번 창조과학투어를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떨 땐 머리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 또 심판의 하나님까지 모두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창조와 과학은 떼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구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곳에 올때 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진실로 믿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드리고, 제 주변,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투어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창조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동행하겠습니다.- 박
시은/배우

귀한 시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이재만 선
교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성경과 더욱 가까워진 것
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이번 투어에 함께 동행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또 사랑하는 저의 동역자를 통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임한 자리였습니다.
'창조의 반대는 성경'이라는 놀라운 깨달음,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저 또한 동행하겠습
니다. 특별히 이재만 선교사님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엄지원/배우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주님, 실수가 없으신 그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사건 이후 가장 가슴아프셨을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이시대를 향해 또 얼마나 가슴 아
파하실까 하는 생각을 내내 하며 나의 삶의 비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진실로 다가오
는 사건이, 내안에 있게 된 창조여행탐사가 내 신앙의 확을 그었음을 확신하며 이재만 선교
사님 사역에 중보자로 나서길 다짐해봅니다. - 이애리/온누리교회,서빙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심판이 있으셨던 과거의 흔적을 보면서 주님 살아계심을 보았습
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
다.- 이희정/서울 온누리교회, 서빙고

동화나 전설처럼 추상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창조과정을 다큐멘터리처럼 오감을 통해
보여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
려드리고, 이제는 좀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에 전할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조창재/온누리교회, 양재공동체

대학 다니고 있는 둘째 딸이 성경 창세기를 있다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다고 물어오
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조건 믿으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이번 창조과학 투어를 통해
서 딸에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을 얻어갑니다. -윤종윤/온누리교회

탐사여행은 기대했었던 것 이상으로 큰 감동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제가 읽어온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이 창조를 입증하기 위해 진화
론을 깨야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았고 '진화의 반대는 성경'이라
는 큰 깨달음을 안고 돌아옵니다.- 강원재/CGN TV

놀랍고, 새롭고, 경이로운 체험입니다.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성애/목동성당

● 편집되지 않은 더 많은 간증은 웹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 ACT Schedule

- 
- 9/4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213-381-1390), CA
 - 9/4 LA 온누리교회 (노희성), LA, CA
 - 9/9-11 베들레헴 교회(이재만), Chicago, IL
 - 9/11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213-381-1390), CA
 - 9/16-26 일본방문(이재만)
 - 9/26-11/1 한국방문(이재만)
 - 9/18 주님의영광교회 (최우성), LA, CA
 - 9/2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최우성), Westminster, CA
 - 9/25 주님의영광교회 (최우성), LA, CA
 - 9/26-27 생터사역원 (이재만), 한국
 - 9/27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최우성), Westminster, CA
 - 10/2 주님의영광교회 (최우성), LA, CA
 - 10/2 목동 지구촌교회 (이재만), 한국
 - 10/4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최우성), Westminster, CA
 - 10/4 전주대학교(이재만)
 - 10/7-8 두란노 수련회 (이재만), 한국
 - 10/9 주님의영광교회 (최우성), LA, CA
 - 10/9 LA 온누리교회 (노희성), LA, CA
 - 10/11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최우성), Westminster, CA
 - 10/11 전주대학교(이재만)
 - 10/11 온누리교회 CEO 스쿨(이재만)
 - 10/15 온누리 중국인 (이재만), 한국
 - 10/18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최우성), Westminster, CA
 - 10/16-18 종교교회 (이재만), 한국
 - 10/21-23 체리힐 장로교회 (이재만), PA
 - 10/28-30 뉴저지 초대교회 (이재만), NJ
 - 10/7-8 두란노 수련회 (이재만), 한국
 - 11/4-6 산호세 새소망 교회 (이재만), San Jose, CA
 - 11/7-11 창조과학 탐사여행 (두란노 모집)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